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나주시민들 나섰다

시민추진위원회 공식 출범…유치활동 구심점 역할 기대

윤병태 시장 “산학연 인프라 집적…연구시설 입지 최적”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일조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맡았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했다.

‘궁극의 무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바닷물 속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도 적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로 꼽힌다.

시는 이 시설을 유치할 때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50년까지 200개 이상의 관련 기업 유치와 1만개 이상의 양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문 인력 유입을 통해 나주시가 ‘에너지 신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산학연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넓고 단단한 부지 안정성과 풍부한 용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시민들이 결집한 힘으로 반드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나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와 나주시민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과 시민 역량을 총결집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주=조원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진군 ‘먹깨비’ 일냈다…매출 100억 돌파

지역축제 연계 자체할인 이벤트…2년째 전남 1위

가맹점주·소비자 모두 만족…전년대비 49% 성장

강진군은 최근 ‘제10회 강진만 추수는 갈매축제’ 개최·기념으로 추진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벤트가 진행된 9일간 공공배달앱 먹깨비 앱을 통해 집계된 주문 수는 7198건, 매출액 2억7000여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문수와 매출액 각각 36%, 49%가 증가한 규모다.

강진군은 축제 기간 내내 지급되는

3000원 할인쿠폰과 연초부터 추진 중인 ‘강진군에서는 누구나 주말 3000원 할인쿠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즉시 지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등 할인쿠폰이 중복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공공배달앱 사용을 늘릴 수 있었다.

이번 이벤트 종료 후 집계된 현황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전남도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운영된 2022년

7월 이래로 강진군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하며, 꾸준히 전남도 매출 1위를 유지 중이다.

강진군 매출 100억원 신화의 성공 비결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자체 할인 이벤트를 통해 노린 ‘축제 특수’다. 먹깨비는 강진군 축제의 필수 동반자로서 축제가 시작될과 함께 할인쿠폰을 지급해 소비자들에게는 알뜰한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의 호응을 얻는다.

먹깨비 입점 업체의 가맹점주 A씨는 “먹깨비는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라 강진군 경제 순환을 만들어내는 효자 앱이다”며 “앞으로도 축제나 주말, 연휴 같



은 때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벤트를 이어 나가 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매주 토·일요일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한 1만5000원 이상 주문에 대해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주말 3000원 할인이벤트’를 연중 추진 중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탄력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순천만 습지를 품은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첫 발을 뒀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순천시·보성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순천만과 여자만 일대를 연계해 해양 생물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국가 해양생태 거점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예타 통과 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69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지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갯벌과 보성갯벌을 포함하는 광역 해역으로 세계유산 연계형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블루카본 생태정원, 흑두루미 보호관, 갯벌보전역사관, 생태관찰네트워크, 갯노을 뱃길 등으로 구성된 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해양생태의 가치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만~여자만~보성을 잇는 해양생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자만은 대한민국 해양생태의 심장부이자 순천만 생태가 확장되는 공간이다”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전남도와 순천시가 함께 추진해 온 결실로 세계적 해양생태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무안 ‘황토아늑자’ 팜파티 성료

다양한 체험 등 농촌 정취 만끽

무안군은 최근 환경면 융성리 황토체험장에서 ‘제2회 황토아늑자 팜파티’를 개최,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황토아늑자’는 무안의 대표 자원인 황토와 친환경 농산물을 주제로,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체험형 농촌축제다.

이번 행사는 농바름 (대표 강형원)이 주최하고 농바름·네망 (대표 정장안)이 주관, 황토문화체험단이 진행을 담당했다.

참가자들은 친환경 당근·무 캐기, 황토올레길 걷기, 황토 보물찾기, 친환경 주먹밥 만들기, 군고구마·가래떡 구워먹기, 민속놀이,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농촌의 정취를 만끽했다.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에서는 황토견문모 항아리 삼겹살, 육전·파전, 새우튀김, 고구마 생강결리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제공돼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무대에서는 난타공연이 진행돼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장오중 무안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팜파티는 무안의 황토와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농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형 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광군을 비롯한 전남·북 5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서해안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영광·군산 등 전남·북 5개 시·군, 국토부에 공동건의문 전달

영광군을 비롯한 전남·북 5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이상희 함평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 서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남·

북 5개 시·군의 공동건의문과 주민 10만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해안철도 사업은 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연결 구간으로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총 연장 110km, 사업비 4조7919억원 규모의 대형 국가철도사업이다.

내년 2월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영광 불갑사 등 관광지, 신재생산업 (태양

광 및 풍력) 기본소득,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소특화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등 영광군 산업·관광 활성화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군수는 “서해안철도 사업인 군산~목포 구간이 완성되면 인천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철도망이 구축되며, 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면 서남권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며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 산후조리비 확대

최대 100만원…2026년 1월 출산가정부터 적용

함평군은 저출산 시대에 가정의 출산을 독려하고 산모가 심신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확대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함평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 회복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사후에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위생용품·의약품·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산부인과 진료비·산후유증 증 상담비, 산후마사지·요가 등 체력 회복 관련 비용 등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함평군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군은 출산장려금,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맞춤형 유아·보육 통합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최근 4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이 더 따뜻한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은 최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